인사이트

직원이 각자 쓰는 AI 에이전트와 회사가 도입하는 업무 AI 에이전트는 무엇이 다른가

회사가 확인할 6가지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10월 2일

제조기업 한 곳이 AI를 붙일 업무 후보를 부서별로 적은 목록에는 120가지가 있었고, 그 가운데 92가지(77%)는 부서 3곳 이상을 지나는 흐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자기 계정으로 쓰는 AI 에이전트는 그 사람의 책상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일을 빠르게 합니다. 하지만 부서 3곳을 지나는 일은 한 사람의 AI 에이전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는 그래서 「직원이 AI를 쓴다」와 「회사가 AI를 도입한다」를 서로 다른 일로 봅니다. 직원이 쓰는 것은 사람마다 도구가 하나씩 늘어나는 일이고, 회사가 도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 흐름과 기준 문서, 권한, 기록 안으로 AI가 들어오는 일입니다. 이 글은 두 가지가 어디서 다른지를 6가지로 나누고, 지금 회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질문 6개를 적습니다.

01

직원이 각자 쓰는 AI 에이전트는 한 사람의 작업을 빠르게 합니다

개인 AI 에이전트는 직원이 자기 계정으로 열고, 자기가 가진 파일을 넣고, 자기가 생각한 지시로 일을 맡기는 도구입니다. 메일 초안을 쓰고, 회의록을 요약하고, 엑셀 표를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쓰는 사람의 일은 실제로 빨라집니다. 회사가 따로 준비할 것이 적어 시작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AI는 흔히 이 형태로 회사에 먼저 들어옵니다.

다만 이 도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그 사람의 책상에서 정해집니다.

- **읽는 범위** — 그 사람이 넣어 준 파일만 읽습니다. 다른 부서가 어제 고친 문서는 알지 못합니다.
- **지시** — 사람마다 지시가 다릅니다. 같은 견적 비교를 맡겨도 맡긴 사람에 따라 다른 표가 나옵니다.
- **결과** — 결과는 그 사람의 대화창에 남습니다. 옆 사람도 회사도 그 결과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 볼 수 없습니다.

개인 AI 에이전트가 나쁜 도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책상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일에는 이 도구로 충분합니다. 회사가 따져 볼 것은 회사의 업무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02

회사가 도입하는 업무 AI 에이전트는 직원 개인의 AI 에이전트와 6가지가 다릅니다

회사가 업무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는 것은 직원 수만큼 계정을 나눠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AI가 일하는 단위, 읽는 문서, 지키는 규칙, 결과가 남는 곳, 권한, 사람이 바뀔 때 남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구분	직원 개인의 AI 에이전트	회사가 도입한 업무 AI 에이전트
일의 단위	한 사람의 작업 한 건	시작부터 끝까지의 업무 흐름
읽는 문서	본인이 넣어 준 파일	회사 기준 문서와 이력
지키는 규칙	사람마다 다른 지시	회사가 정한 같은 규칙
결과가 남는 곳	개인 대화창	회사 기록
권한과 승인	쓰는 사람이 모두 판단	권한 범위와 승인 지점 지정
사람이 바뀌면	요령이 함께 나감	규칙과 기록이 회사에 남음

이 6가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03

업무는 부서를 지나가는데, 개인 AI 에이전트는 한 사람의 책상에서 멈춥니다

첫째 차이는 일의 단위입니다. 앞에서 든 제조기업의 업무 120가지를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가」로 묶으면 16개 흐름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부서 안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흐름은 2개뿐이었습니다. 구매 요청에서 대금 지급까지 가는 흐름은 구매, 원가, 금형개발, 생산관리, 재경 5곳을 지납니다.

구매 담당이 개인 AI 에이전트로 견적 비교표를 빨리 만들어도, 원가 부서와 재경 부서는 그 표를 받아 자기 문서와 다시 맞춰 봅니다. 일 전체가 끝나는 시간은 한 사람이 문서를 만드는 속도가 아니라 **부서에서 부서로 넘어가는 곳**에서 정해집니다. 개인 AI 에이전트는 그곳까지 닿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는 같은 일이 부서 이름만 바뀌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일	적어 낸 부서	건수
규정·매뉴얼 질의응답	6곳	7

같은 일	적어 낸 부서	건수
협의 회의록 요약	4곳	4
업체 견적·사양 비교	3곳	3

직원이 각자 AI 에이전트를 쓰면 이런 일은 부서마다, 사람마다 따로 만들어집니다. 규정 질의응답을 6개 부서가 각자 만들면 같은 질문에 부서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입하는 업무 AI 에이전트는 이 일을 한 번 만들어 흐름마다 사용합니다.



개인 AI 에이전트는 같은 일을 사람 수만큼 따로 만들고, 회사가 도입한 업무 AI 에이전트는 한 번 만든 것을 업무 흐름마다 사용합니다

04

회사 기준 문서를 읽지 못하는 AI 에이전트는 사람마다 다른 답을 냅니다

둘째와 셋째 차이는 AI가 읽는 문서와 지키는 규칙입니다. 개인 AI 에이전트에게는 사람이 넣어 준 파일이 전부입니다. 단가표의 지난 판을 넣으면 지난 단가로 답하고, 개정 전 규정을 넣으면 개정 전 규정으로 답합니다. AI는 그 파일이 최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도입한 업무 AI 에이전트는 회사가 정한 기준 문서에서 값을 읽습니다. 단가, 규정, 고객 사양, 설계 변경 이력의 원본이 한곳에 있고, 누가 맡기든 AI는 같은 원본을 읽습니다. 웨이스는 사내에서 회사 수치를 한 폴더에만 두고, 모든 제안서와 견적서가 그 폴더에서 값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같은 수치가 문서마다 따로 있으면 AI가 문서를 많이 만들수록 틀린 값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서의 형식, 쓰면 안 되는 표현, 사람이 승인해야 하는 일을 직원마다 지시문에 적게 하면 그 규칙은 사람 수만큼 달라집니다. 회사가 규칙을 한 번 적어 두고 모든 직원의 AI 에이전트가 그 규칙을 읽게 하면, 누가 맡겨도 같은 기준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 **기준 문서** — 값의 원본을 한곳에 두고, AI는 그곳에서만 값을 가져옵니다.
- **공용 규칙** — 회사가 정한 규칙을 모든 직원의 AI 에이전트가 함께 읽습니다.
- **검사** — 결과물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회사 기준으로 한 번 더 검사합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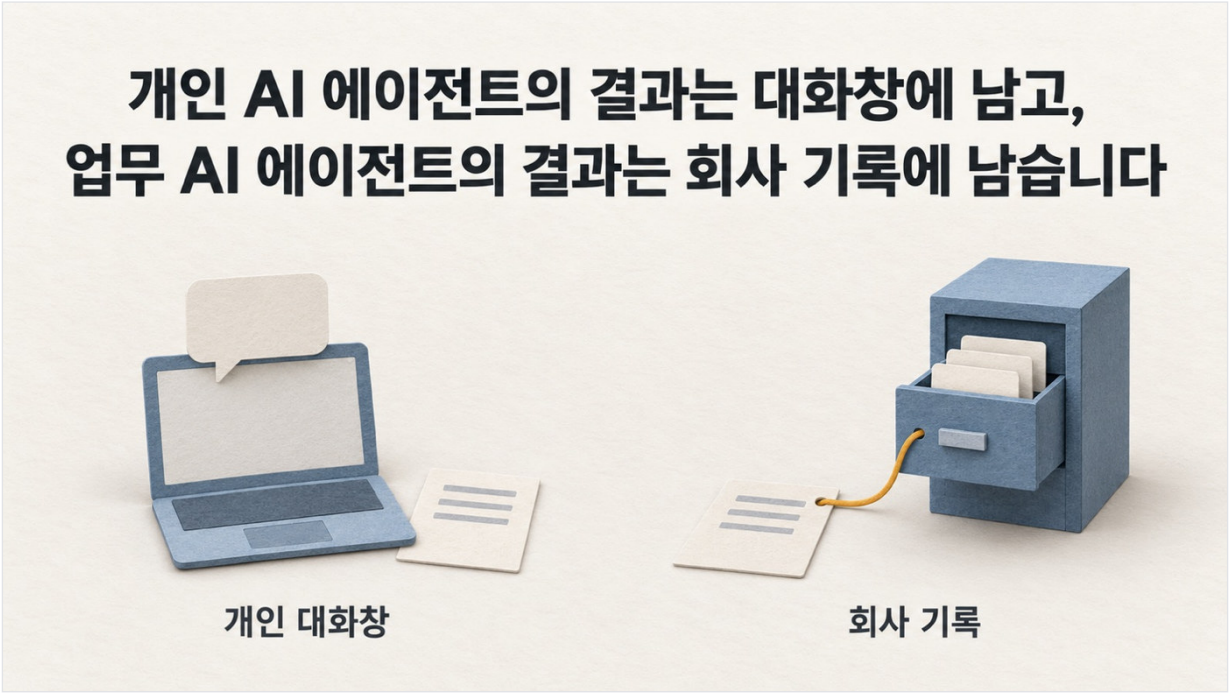
AI가 한 일이 개인 대화창에만 남으면 회사는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차이는 기록과 권한입니다. 개인 AI 에이전트가 만든 견적서는 파일로 남지만, AI가 무엇을 읽고 그 숫자를 냈는지는 개인 대화창에만 있습니다. 승인하는 사람은 결과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틀렸을 때 어느 문서에서 온 값인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도입한 업무 AI 에이전트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회사 기록으로 남깁니다. 누가 맡겼는지, 어떤 문서를 근거로 삼았는지, 사람이 어디서 승인했는지가 그 기록에 함께 있습니다.

권한도 다릅니다. 개인 AI 에이전트에는 쓰는 사람이 열 수 있는 문서라면 무엇이든 넣을 수 있고, 회사는 어떤 문서가 들어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회사가 도입할 때는 아래 3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 **AI가 열지 않는 문서** — 담당자의 권한 밖에 있는 문서는 AI도 열지 않습니다.
- **사람이 승인하는 지점** — 가격, 계약 조건, 밖으로 나가는 문서는 AI가 준비하고 사람이 정합니다.
- **업무 흐름의 책임자** — 그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지 챙기는 사람을 한 명 둡니다.



개인 AI 에이전트의 결과는 개인 대화창에 남고, 회사가 도입한 업무 AI 에이전트의 결과는 근거·승인과 함께 회사 기록에 남습니다

06

직원이 그만두면 개인 AI 에이전트를 쓰던 요령도 함께 나갑니다

여섯째 차이는 사람이 바뀔 때 드러납니다. 개인 AI 에이전트를 잘 쓰는 직원에게는 자기만의 지시문과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 어떤 지시에서 AI가 틀리는지도 그 사람이 압니다. 이 요령은 개인 계정과 그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회사를 떠나면 요령도 함께 나갑니다.

회사가 업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 규칙과 절차, 지난 기록이 회사에 남습니다. 새로 온 직원은 첫날부터 같은 규칙으로 같은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AI가 틀렸던 일과 그때 고친 방법도 회사 기록에 남아, 다음 사람이 같은 실수를 다시 겪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요령이 회사의 절차로 바뀝니다.

07

직원 수만큼 AI 계정을 나눠 준 회사는 아래 6가지 질문으로 도입 단계를 확인합니다

직원 수만큼 계정을 나눠 주면 개인 도구가 직원 수만큼 생깁니다. 그것이 회사 도입인지는 계정 수가 아니라 아래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 **흐름** — AI가 맡는 일이 시작 사건과 끝 산출물로 정의돼 있습니까.

- **기준 문서** — AI가 읽는 단가·규정·이력의 원본이 한곳에 있습니까.
- **규칙** — 맡기는 직원이 달라도 AI가 같은 규칙을 지킵니까.
- **기록** — AI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회사 기록에 남습니까.
- **권한과 승인** — AI가 열지 않는 문서와 사람이 승인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인수인계** —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음 사람이 그 일을 같은 방식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예」가 하나도 없다면 그 회사는 직원이 AI를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6개가 모두 「예」라면 회사가 AI를 도입한 단계입니다. 그 사이에 있다면 「아니오」로 답한 항목을 다음에 하면 됩니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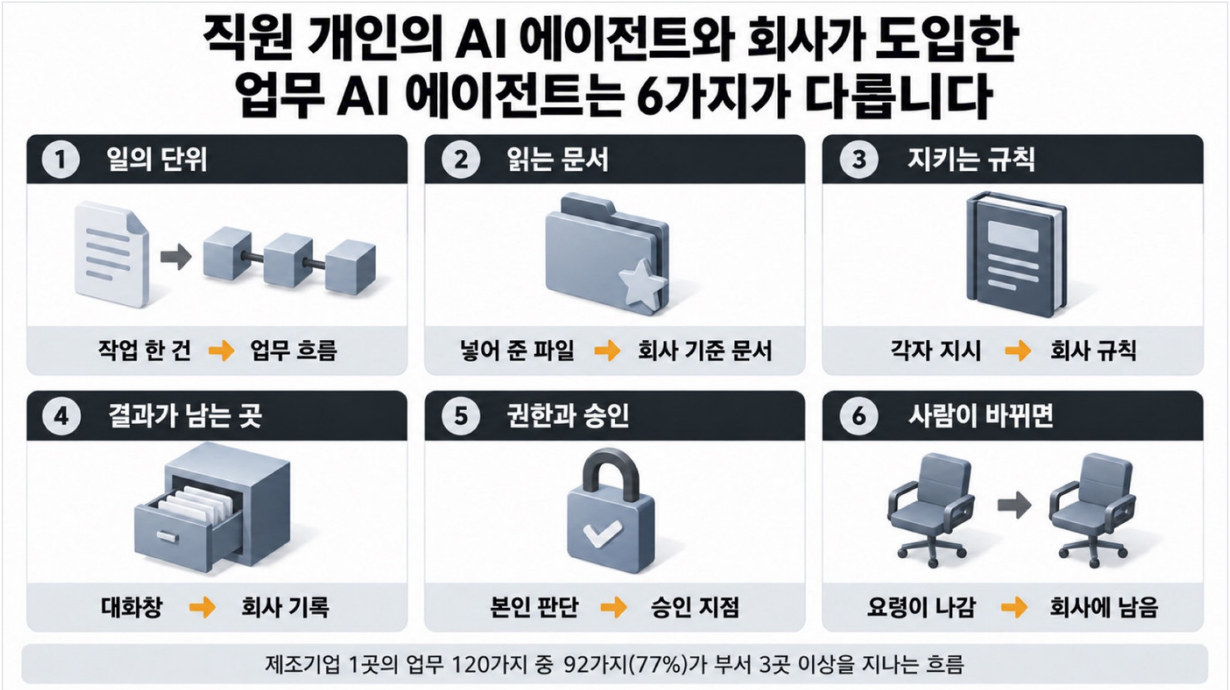
회사 도입은 개인 사용을 막는 일이 아니라, 업무 흐름 하나를 회사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회사 차원의 도입을 직원의 개인 사용을 막는 일로 이해하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한 사람의 책상에서 끝나는 일은 개인 AI 에이전트로 계속하면 됩니다. 회사가 할 일은 부서를 지나는 업무 흐름 하나를 골라 아래 순서로 회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 **흐름 하나 고르기** — 부서 3곳 이상을 지나고 문서가 많이 오가는 흐름을 하나 고릅니다.
2. **기준 문서와 권한 정하기** — 그 흐름에서 AI가 읽을 원본과 열지 않을 문서를 정합니다.
3. **책임자와 승인 지점 정하기** — 흐름 책임자 한 명과, 사람이 판단하는 지점을 적습니다.
4. **기록 남기기** — AI가 읽은 것과 만든 것을 회사 기록으로 남기고, 틀린 일이 나오면 규칙을 고칩니다.

같은 업무 AI 에이전트를 한 사람이 혼자 써도 됩니다. 그때도 회사의 기준 문서와 규칙, 기록을 바탕으로 쓰면 그 결과는 회사에 남습니다. 개인이 쓰느냐 여럿이 쓰느냐보다 AI가 한 일이 어디에 남느냐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앞의 수치는 제조기업 한 곳이 한 번 적어 낸 AI 후보 업무 목록에서 나왔고, 그 회사의 업무 전체가 아닙니다. 흐름으로 묶는 기준은 웨이스가 정했고, 기준에 따라 흐름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으로 도입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아직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직원 개인의 AI 에이전트와 회사가 도입한 업무 AI 에이전트는 일의 단위, 읽는 문서, 규칙, 기록, 권한, 사람이 바뀔 때 남는 것이 다릅니다

직원이 AI를 쓰는 회사와 AI를 도입한 회사는 계정 수가 아니라, AI가 한 일이 회사의 업무 흐름과 기록에 남는지로 나뉩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09

함께 읽어보세요

- 웨이스는 업무 AI 에이전트를 직원 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도입하도록 만듭니다 — 기준 문서·규칙·기록·권한은 개인 계정이 아니라 회사에 남습니다
- 한 제조기업이 부서별로 적은 업무 120가지는 시작과 끝으로 묶으면 16개 흐름이었습니다 — 제조기업 업무 다시 정의하기 1편
- AI 도입 3개월 뒤 아무도 안 쓰는 6가지 형태, 90일 계획으로 막기 (30분)

원문 blog.vexplor.com/post/personal-ai-agent-vs-company-work-ai-agent
발행 2026년 10월 2일 ·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회사 주식회사 웨이스 (WACE Inc.) · 대표이사 방동걸 · 사업자등록번호 439-87-02852
주소 (18462)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A동) 1702-1708호 (영천동, 실리콘앨리동탄)
연락처 전화 070-4730-0629 · contact@wace.me
홈페이지 wace.me · linkedin.com/company/wace-inc

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